

# 전자문화 시대의 한글의 힘

한글이 전달하는 내용은 한글의 뜻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뜻

글 김미경 대덕대 교양과 교수, (대한민국대표브랜드 한글) 저자

한국은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인터넷과 핸드폰 문화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을 제치고 우리가 이렇게 전자문화를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가 한글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 국민이 한글을 공용으로 사용한 역사가 60년밖에 안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 최고의 전자문화를 누리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한글이 누구나 배우기 쉬운 문자이며, 동시에 전자화에 가장 적합한 과학적인 문자이기 때문이다. 전자문화는 기계와 함께 문자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문자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한글이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특성은 한국인이 1,000년 동안 지속된 한자문화와 일제시대를 겪고도 단 40년 만에 거의 모든 사람이 문자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 전자문화와 구술성의 만남

더구나 한글은 과학적인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초를 다투는 전자정보 시대에 최적의 문자이다. 12개로 제한된 핸드폰의 자판 내에서 천지인 3개의 자판만으로 필요한 19개의 모음을 이렇게 빠르고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문자는 없다.

한국인들이 전자문화에 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전자문화의 구술성이 한국인의 정서와

잘 맞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문자생활을 한 역사는 매우 짧다. 1945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구술 문화에 속해있었다. 월터 옹 박사는 그의 저서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서 인류의 문화를 정보전달 방법을 기준으로 구술문화시대, 문자문화시대, 전자문화시대의 3 단계로 구분하면서 문자문화시대에 문자와 인쇄가 인간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옹 박사는 오늘의 전자문화를 제2의 구술 문화로 해석하면서, 특히 인터넷에 의존한 커뮤니케이션이 강한 구술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현재의 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 말로 정보를 나눌 때 그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올라오는 댓글은 순간적으로 반응을 주고받으며 사라져간다. 또한 인터넷 안에서의 대화는 문어체의 격식을 깨트리고, 문자를 사용하지만 형식에서 벗어난 구어체를 사용하게 만든다.

이와 함께 전자문화의 구술성은 강한 집단 의식을 낳는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에서 들리고 전해지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청취자나 시청자들은 순간적으로 하나의 집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집단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 규모가 커졌으며, 그 힘 또한 막강한 것이 되었다.

## 중립성과 객관성 결여된 구술문화

한국은 40년이라는 짧은 문자문화시대를 거친 후, 1980년대에 컴퓨터 산업의 발달과 함께 곧 바로 전자문

화시대로 돌입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더 빨리 전자문화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자 구술문화가 담고 있는 즉시성과 집단성의 정서가 한국인에게 내재된 구술문화적 정서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의 즉각적인 반응과 신속성은 젊은이들을 매료시켰으며, 격식에서 벗어난 구어체의 통신언어는 기존의 질서에 반항하는 젊은 세대의 기질에 잘 맞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자문화의 구술성은 매우 빠르고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구술성의 한계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구술성은 장황하고 다변적인 대신에 분석적인 사고와 조리정연하게 정리된 논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현실참여적이고 논쟁적이며 감정이입적인 대신에 현실에서 한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영웅 만들기에 몰두하는 동안 소시민과 개인주의를 무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술성은 선조의 지식을 보존하면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지식 세계를 구축하기 어렵게 만든다.

오늘날 우리가 인문과학과 기초자연과학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저력이 모자람을 느끼게 되는 것은 서구인들이 2,000년 동안 혹은 서구의 일반인들이 적어도 500년 이상 문자문화를 누리며 그들의 정신을 훈련하고 지식세계를 가꾸어온 역사에 비해, 우리는 전 국민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지 40년 만에 불어 닦친 전자문화의 구술성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우리의 문자문화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죄의식을 덜 느끼는 것도, 차분한 사색과 분석력과 논리성이 부족한 것도 문자와 책을 기반으로 한 문자문화의 결여 때문이다. 이제 전자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문자문화의 장점들을 배우고 전자문화의 장점과 접목시키는 일이다.

지난 5년간 우리는 전자정보매체와 한글을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가를 목격했다. 그리고 전자문화의

초기 단계인 지금까지는 인터넷의 속도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의 수와 사용시간, 혹은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집단행동의 크기와 같은 양적인 거대함으로 전자정보화의 성공을 기뻐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전자문화의 융성기에는 기계의 속도나 정보교환의 양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교환되는 정보의 질과 보존되는 콘텐츠의 질로 평가받을 것이다.

### 정보의 질은 교환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현재 한국인이 누리는 전자문화는 한글이 가진 문자의 우수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글의 역할은 거기까지이다. 한글은 그 자체가 어떤 정신이나 정서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며, 단지 정보를 교환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다. 잘 드는 칼을 무사가 사용하면 사람이 다치고, 조각가가 사용하면 예술품이 나오듯이, 사용하기 쉬운 한글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오는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앞으로의 한글의 힘은 우리가 한글로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으며, 한글로 어떤 지적인 업적들을 만들어내며, 한글로 어떤 정보들을 후대에 남기는가에 달려있다.

이제 무엇보다 한글로 담아낼 한국어와 우리의 정신을 다듬고, 순간성을 뛰어넘는 지식정보들을 한글로 구축하고 교환해야할 시기이다. 교환되는 정보의 질은 한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만들고 교환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결정한다. 한글이 전달하는 내용은 한글의 몫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몫이다. **◆◆**